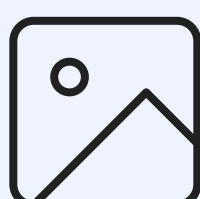


#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

유영광(지은이)    클레이하우스    2023-06-14



도서명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
저자	유영광
출판사	클레이하우스
출간일	2023-06-14
정가	16,800원
판매가	15,120원(10% 1,680원 할인)
배송료	무료
수량	1

장바구니 담기

구매하기

## 기본정보

328쪽    ISBN : 9791198173898

주제 분류

- 국내도서 > 소설/시/희곡 > 판타지/환상문학 > 한국판타지/환상소설
- 국내도서 > 소설/시/희곡 > 한국소설 > 2000년대 이후 한국소설

## 책소개

불행을 파는 대신 원하는 행복을 살 수 있는 가게가 있다면? 듣기만 해도 방문하고 싶어지는, 비가 오면 열리는 수상한 상점에 초대된 여고생 세린이 안 내묘 잇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깨비들과 함께 펼치는 감동 모험 판타지.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은 출간 전부터 많은 독자에게 입소문이 자자했던 작품이다. 처음 텀블벅에서 소개됐을 때부터 2000만 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모금하며, 베스트셀러 『달러구트 꿈 백화점』과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의 금액을 넘어섰다.무엇보다 2023년 4월에 열린 런던도서전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출간 전부터 해외 6개국(폴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일본, 대만, 러시아)에 판권을 먼저 수출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 출판 역사상 최초의 일로, 그야말로 ‘괴물 신인 작가’의 탄생이라 할 수 있다. 도 대체 이 소설에 어떤 매력이 있기에 국적과 언어를 초월해 큰 기대를 받는 것일까?“해리포터 시리즈와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만났다.” “더 열심히 살아갈 용기와 위로를 얻었다.” “놀랄 정도로 잘 읽힌다.”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라 여운이 오래 남을 것 같다.” 작품을 먼저 읽은 독자들의 말처럼, 이 소설이 재미와 감동 그리고 의미를 모두 잡았기 때문이다. 마치 영상을 보는 것과 같은 생생한 묘사와 속도감 있는 문체, 판타지와 성장소설의 결합, 무엇보다 따스한 시선으로 희망과 용기를 건네는 작가의 진정성과 작품의 메시지가 언어와 문화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 목차

Prologue
괴소문
수상한 편지
무더위
장마 전야
문지기 토리아
장마상점
베르나의 불행 전당포
듀로프의 안내 데스크
엠마의 헤어 살롱
마타의 서점
니콜의 향수 공방
포포의 화원
보르도 & 보르모의 레스토랑
하쿠의 고물상
그룸의 카지노
지하 미로 감옥
얀의 라운지 바
펜트하우스
안내묘 잇샤
보물창고
무지개
Epilogue
작가의 말